서울주보

제2364호
2021년 10월 31일(나해)

연중 제31주일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편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 당 송 |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 신명 6,2-6

화 답 송 | 시편 18(17),2-3ㄱ.3ㄴㄷ-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히브 7,23-28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마르 12,28ㄱㄷ-34

영성체송 |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첫째가는 계명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노랑아저씨. 명동밥집을 연 첫날부터 지금껏 찾아주시는 단골입니다. 아직 밥을 지을 수 없어 도시락을 드리던 초기에는 하나 더 받으려는 분들로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노랑아저씨도 가끔 그러셨죠. 하지만 당일 한정된 수량 탓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 3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는 요즘은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께 몇 번이고 원하시는 만큼 식사를 제공합니다. 어느 날, 식사 중인 노랑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수북이 담은 따뜻한 밥을 천천히 오래도록 정성껏 드시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배식 텐트를 가득 메운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김수환 추기경)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 62%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비종교인의 82%가 종교의 사회적 기여를 낮게 평했습니다.(참고로, 그 조사에서 종교인 대 비종교인의 비율은 4 대 6이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자고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2년째 이어지는 팬데믹에 교회가, 또 신앙인이자 사제로서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결국 우려하던 바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큰물이 닥치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살기 위해 높이 오르려 애쓰지만, 하느님은 낮은 곳, 인간의 곁으로 내려오신답니다. 그것이 강생육화의 신비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오늘 저 강생육화의 신비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오늘, 여기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뜻을 선포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마르 12,33)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흘러간 가요 중에 "오직 사랑뿐"이란 대목이 떠오릅니다. 역시 사랑 말고는 이 팬데믹 시대를 견딜 재간이 없는 거겠죠. 재난의 시대, 고통과 절망을 체험하는 이웃들에게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할 방법은 오직 그들 곁으로 다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역사의 여러 기로에서마다 교회가 '교회의 보화인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길을 찾고 본 모습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선조들의 하느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첫째가는 계명'이지 않을까요.

서울숲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사진 설명

아침 산책길에 만난 정겨운 모습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걸어야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빈 휠체어를 밀고 가는 옆 사람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더운 동반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윤순 젤마나 | 가톨릭사진가회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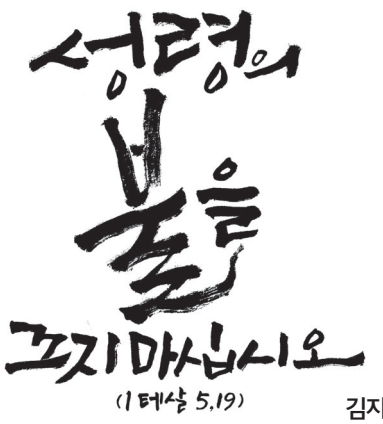
장일범 발렌티노 | 음악 평론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cpbc 가톨릭평화방송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당에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가톨릭평화방송 TV의 매일미사 뿐이었습니다. 영성체를 직접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주교님, 신부님들과 영상으로 만나면서 깊이 있는 강론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톨릭평화방송의 시청률은 한국의 종교방송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모든 방송국 중에서도 6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톨릭평화방송의 TV 매일 미사를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탈리아에서 많은 인명이 세상을 떠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서 코로나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홀로 집전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 가톨릭평화방송 TV가 미사를 생중계해줬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이었지만 안드레아 보첼리가 밀라노 대성당(Duomo) 안팎에서 전 세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 부르던 장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음악회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조셉 마리가 명동성당에서 연주하던 엄숙한 모습,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사명감으로 의료 일선에서 맹활약한 의료진을 위해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명동성당에서 열었던 음악회도 떠오릅니다. 저는 16년 전쯤 이탈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북부 연주 투어에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곳곳의 마을 연주회가 모두 성당에서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마음으로 가깝게 여기는 성당을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명동성당 음악회도 좀 더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소망을 밝혀봅니다.

최양업홀에서 봄, 가을 시즌에 열리는 정오음악회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정오음악회를 보러 동네의 많은 어르신들이 중림동 약현성당 옆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의 최양업홀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요즘은 무관객 공연으로 전환해서 청중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면 다시 청중을 맞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 역시 가톨릭평화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평화방송도 시대에 맞게 유튜브로 복음을 전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비롯 모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 게스트가 출연할 때 대부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곁으로 더 친숙하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제작하고 있는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기다립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김지현 엘리사벳
의정부교구 능곡성당

1) 사랑의 계명과 생태계 보호
2) 생태계 보호를 통한 이웃 사랑
3)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생태계 보호를 통해 실천합시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계 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으며, 기후 난민이 되는 이때,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봄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에 끼치는 환경 파괴의 비극적 영향을 해결하고자 쉼 없이 노력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십니다.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도 이 노력에 초대하십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의 상황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더 의지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황과 목소리에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비로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1 고통받는 피조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공동의 집 지구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2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의식합시다.

"우리 인류가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한다는 의식"(회칙 「찬미받으소서」 202항)을 가지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보다 타인을 향해 움직이는 능력을 키웁시다.

3 언제나 검소하게 생활합시다.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에 만족합시다.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자주 되새깁시다.

4 하늘과 물과 땅을 깨끗하게 돌봅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모든 종류의 버릴 것을 줄이고, 하늘과 땅과 물을 더럽히는 모든 활동을 줄이며 더 나아가 없애 나갑시다.

5 기후 난민들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기후 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피해를 당한 가난한 나라의 기후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준비를 해나갑시다. 필요한 때에 난민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돌봅시다.

6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듭시다.

물건을 만들고 이용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기울입시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압박합시다.

7 지구와 약자를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을 선택합시다.

공동의 집 지구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데 힘쓸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를 막는 우리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4년 11월 5일 김피득 베드로 신부(47세)
- 1984년 11월 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 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11월 1일(월)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서울주보 알림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곳: 11월4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문의: 02)727-2407, 2409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11월2일 · 12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3人의 꿈. 꾸다' 전: 1전시실
심상무 십자가전: 2전시실
주동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3일(수)~8일(월)

'기억 희망 그리고 축복' 희년 기념 전시회
때: 11월10일(수)~15일(월)
곳: 갤러리1898 1, 2, 3 전시실, 체험형 부스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최: 서울대교구가톨릭사진가회,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가톨릭전례꽃꽂이연구회
부대 행사: 가훈 써주기, 영정사진 · 가족사진 촬영, 나무십자가 만들기 체험 / 문의: 02)777-2013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1월10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B20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2021 가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청년 Hello 기도 2021	11월2일 매월 첫째주(화) 19시30분~21시
신앙,인문학을 만나다 -음악	11월11일~25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SNS 안내

문화홍보국
└서울주보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oul_jubo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가톨릭튜브 https://bit.ly/3pCTmTN

사목국
└유튜브 https://bit.ly/3EdplZy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thbible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atholic_youthbible
└유튜브 https://bit.ly/3m6RReu

노인사목팀
└유튜브(가서봄봄) https://bit.ly/3b3DlZg
└유튜브(가영시아) https://bit.ly/3pweniT

성서못자리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xmxgSxdK
└유튜브 https://bit.ly/3vEt193

해외선교봉사국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VQxnxgs

성소국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fSzRK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sungso

청소년국
└주일학교 공통 유튜브 채널 https://bit.ly/3pE30pr

초등부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locat_foryouth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chotastars

중고등부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locat_foryouth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ForyouthMedia

청년부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catholic_seoul_2030
└유튜브 https://bit.ly/3CbfZCj

서울 아지트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seoulajit

장애인 신앙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cafema.or.kr

학교사목부 가톨릭학생회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ycscell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7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1월21일(일) 10시30분~16시 / 성소 피정	Zoom	010-4096-5973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틀담교육관 1일 피정 / 문의: 010-3590-6319
때: 11월3일·6일·10일·18일·21일·24일·28일, 12월 4일·6일·11일·15일·18일 / 곳: 서울 노틀담교육관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11월6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명동) 205-2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30·40 독신자들의 반택트 피정 '좀 쉬자'
대상: 30·40대 독신자로 백신 접종 완료자 우선
때: 11월6일~7일·11월20일~21일 (택 1)
곳: 연천 착한의견의 성모수도원(주최)
회비: 10만원(선착순 15명) / 문의: 031)834-126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5차	11월5일(금)~13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6차	12월3일(금)~11일(토)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음악치유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2)575-7661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반	11월17일~12월1일 매주(수) 13시~16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11월23일~12월7일 매주(화) 13시~16시	회비: 15만원

11월 가정선교회 행사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1월3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이상재 신부, 이현주 회장 / 식수 준비 문의: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첫토 성모 신심미사	11월6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한철호 신부 / 010-5674-8511, 02)777-1773 대표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원서접수: 11월1일(월)~26일(금) / 인원: 20명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61)432-9241

생활성서사 온라인클래스 '가톨릭온' 신규 클래스 개강
문의: 010-3092-1108, 02)945-3300(www.catholicon.co.kr)

성경본문줌인 2	김혜윤 수녀	수시 접수
지혜여정 예언서	박형순 신부	
지혜여정 역사서	김영선 수녀	

미사반주자 오르간 교육 / 문의: 010-3203-8183
곳: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주최) 천호동성당 내

ICPE 온라인 청년 세미나 / 문의: 010-9773-3430
주제: 몸신학과 젠더 이데올로기 / 대상: 청년
때: 11월5일부터 매주(금) 20시 / 회비: 2만원(6주)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희랍어)
때: 2022년 1월~12월 (수) 19시30분~21시30분(1년)
곳: Zoom 수업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월8일~22일 / 입학문의: 054)851-3021(http://www.csj.ac.kr) 교무입학처

2022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모집
접수: 11월9일(화)~19일(금)
면접고사: 11월26일(금) /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간호학과
입학문의: 032)830-7022 송도국제캠퍼스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 유아, 평생, 특수, 직업특수, 진로진학 / 모집: 11월1일(월)~14일(일)
면접: 11월26일(금) 17시 / 문의: 02)2164-4173, 4176, 4787(https://ged.catholic.ac.kr)

2022년 전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상: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곳: 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모집: 11월1일(월)~15일(월) / 면접일: 12월3일(금) 19시
홈페이지: https://welfare.catholic.ac.kr
문의: 02)2258-7723 / 이메일: dpt6010@catholic.ac.kr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뇌발달연구검사 참여자 모집
연구과제명: 청소년기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뇌영상 연구 / 대상: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및 성인(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내용: 뇌 구조 및 기능 MRI 촬영, 자기보고설문검사(총 2시간30분 소요) / 실시기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연구책임자: 전지원 교수)
참여방법: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여부 안내
신경인지검사결과제공 및 교통비를 포함한 사례비 지급
문의: 010-7173-7589, 02)2258-7586

모집

cpbc소년소녀합창단 2022년 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영성체 받은(2022년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11월27일(토) 15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문의: 010-2650-8014
11월25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 11월30일까지 접수
문의: 010-5399-3371, 010-9068-7346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1월3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고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11월6일(토)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종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1월1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故 차동엽(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2주기 추모 미사
때, 곳: 11월12일(목) 오후 2시, 백석 하늘의문 성직자 묘원 /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1월5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1월3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안내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성심의집(공동생활가정) 입소어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곳: 파주시 하우고개길 425(운정역 주변)
시설운영: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문의: 031)945-5036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직원모집

신정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2601-0103
대상: 신체 건강한 신자(방화 및 가스안전면허 소지자 우대)
근무시간: (월) 휴무, 주 40시간 / 업무: 방호, 미화, 시설관리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서류 전형 및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채용시까지 우편(우 08027,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6길 28 신정동성당 사무실)및 방문 접수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책 읽기 딱 좋은 계절
신심을 더욱 풍요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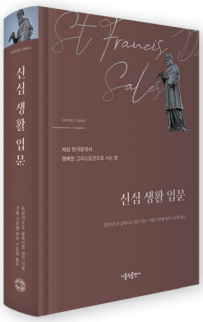
신간 도서 ◆◆◆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 ◆◆◆

가톨릭 클래식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 지음
18,000원



신심 생활 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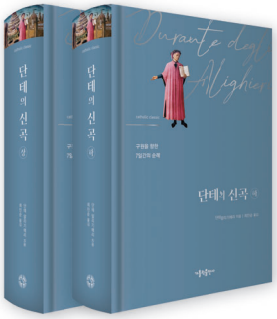
세상 한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지음
20,000원

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

작은 꽃, 작은 붓,
작은 길의 영성

성녀 소화 데레사 지음
20,000원



단테의 신곡 (상,하)

구원을 향한
7일간의 순례

단테 알리기에리 지음
각권 22,000원

이름 없는 순례자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순례자의 이야기

최익철, 강태용 옮김
18,000원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받아 온 고전이자 스테디셀러가 '가톨릭 클래식' 이름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변함없이 오래오래 신자들 마음속에 울림과 귀감을 준 지혜의 말씀들을 지금 다시 만나 보세요!

신간 도서

깊은 곳의 빛

"어둠도 당신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지음 | 14,000원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성경 일화를 통해 고찰하는 묵상집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 현실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간 도서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개정)

안셀름 그륀 신부가 말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결정의 힘

안셀름 그륀 지음 | 15,000원

우리가 내린 수많은 결정 중에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결정'을 통해 쌓인 영양분으로 또 한 뼘 자라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또는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